

또 '결장' 이강인, 잔류냐 이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제 아스널과의 UCL 4강 1차전 결장
UCL 기준으로 3경기 연속 벤치 달귀
상황 반복되면 새로운 도전 고민해야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또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PSG)은 30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PSG는 내달 8일 오전 4시 홈에서 예정된 아스널과의 4강 2차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PSG는 사상 첫 유럽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지만, 이강인은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이강인은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는 못했다.

이강인은 최근 벤치에 앉는 시간이 늘었다. 4월 치른 3번의 UCL 경기를 모두 그러문 드가 아닌 교체 명단에서 지켜봤다. 지난 10일과 16일에 치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와의 UCL 8강 1, 2차전을 뛰지 못했다. 그리고 이날 아스널과의 4강 1차전도 벤치에만 앉았다. '꿈의 무대'인 UCL 경기를 3경기 연속 결장했다. 이전 일정이었던 16강전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리버풀(EPL)과의 1차전은 벤치에서 지켜봤고, 2차전은 연장전 교체 투입돼 단 19분밖에 뛰지 못했다. 그러나 선발 출전했던 리그에서도 임지가 온전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니스전(1-3 패배)을 벤치에서 지켜본 바 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공식전 43경기에서 출전

해 6골6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으나, 최근에는 교체 혹은 벤치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강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2개다. 잔류 혹은 이적을 택해야 할 때다. 불박이 핵심은 아니지만, 주전 로테이션 차원으로 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PSG와 같은 대형 클럽은 리그뿐 아니라 각종 컵 대회까지 소화해야 하기에 두터운 스퀴드가 필수다. 미드필드 전지역은 물론, 새도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제 몫을 해주는 젊은 자원인 데다 팀 내 대체 불가 선수가 아닌 만큼, EPL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적설에 제기됐다. 이에 PSG가 이강인을 지키기 위해 재계약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리그는 조기 우승을 확정했으나, UCL이라는 큰 무대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당장 이강인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이강인이 UCL 우승까지 도전하는 PSG의 향후 경기에서 다시 중용돼 힘을 보탬 수도 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날 경기 이후 측면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프랑스)의 근육 부상을 알렸다. 그는 "현재로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다. (그가) 2차전 출전을 희망하곤 있으나, (상황이 심각해)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뎀벨레의 자리는 이강인이 소화할 수 있어, 아스널과의 2차전에서 UCL 반복 결장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팀이 역사를 쓰는 중요한 과정에서 벤치만 달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름 이적 시장 개장 전 새로운 도전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정후, MLB닷컴이 뽑은 세컨드팀에 포함... "장타 기계"

개막 이후 한 달 성적을 바탕으로 뽑은 MLB 세컨드팀. (사진 = MLB 공식 X 캡처)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최정상급 외야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MLB닷컴은 30일(한국 시간) 개막 이후 한 달 성적을 기준으로 올 MLB팀(ALL-MLB Team)과 세컨드팀을 선정해 공개했다. 2019년 제정된 올 MLB팀은 미국프로농구(NBA)와 미국프로풋볼(NFL)처럼 MLB에서도 포지션 별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로 구성된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구분 없이 이번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후보 선수를 선정한 뒤 팬 투표 50%와 전문가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퍼스트팀과 포지션별 차점자들이 구성된 세컨드팀으로 나눠 발표한다. 이정후는 세컨드팀 외야수 중 한 명으로 뽑혔다. MLB닷컴은 "이정후는 28일까지 타율 0.324, OPS(출루율+장타율) 0.903을 기록했다"며 "이

정후는 11개의 2루타를 쳐 내셔널리그(NL) 공동 1위에 올랐다. 3루타 2개와 홈런 3개도 때려냈다. '장타 기계'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성적을 기준으로 퍼스트팀 외야수로는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 코빈 कै릴(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가 뽑혔다. 세컨드팀 외야수로는 이정후와 함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후안 소토(뉴욕 메츠)가 이름을 올렸다. KBO리그를 평정하고 2023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에 계약한 이정후는 지난해 5월 어깨 부상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데뷔 첫 해 성적은 37경기 타율 0.262 2홈런 8타점 2도루 15득점에 OPS 0.641이었다.

재활을 마치고 올 시즌 개막 로스터에 합류한 이정후는 콘택트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장타력을 과시하며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MLB닷컴은 포수 칼 롤리(시애틀 매리너스), 1루수 피트 알론소(메츠), 2루수 토미 에드먼(LA 다저스), 3루수 오스틴 라이리(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유격수 보비 워트 주니어(캔자스 시티 로열스),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다저스)에 저지, कै릴, 터커를 퍼스트팀 야수진으로 뽑았다. 퍼스트팀 선발 투수진은 테릭 스쿠벨(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리츠), 잭 윌러(필라델피아 필리스), 야마모토 요시노부(다저스), 개릿 크로세(보스턴 레드삭스)로, 구원 투수진은 메이슨 밀러(애슬레틱스), 조시 레이더(휴스턴 애스트로스)로 선정했다. 포수 윌리엄 콘트라라스(밀워키 브루어스), 1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 2루수 브랜던 도너번(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보스턴),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도어(메츠), 지명타자 마르셀 오수나(애틀랜타), 외야수 타티스 주니어, 소토, 이정후가 세컨드팀 야수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컨드팀에서 선발 투수는 로건 웹(샌프란시스코), 매킨지 고어(워싱턴 내셔널스), 마이클 킹(샌디에이고), 헌터 브라운(휴스턴), 헌터 그린(신시내티 레즈), 구원 투수는 안드레스 무뇨스(시애틀), 로버트 수아레스(샌디에이고)가 포함됐다.



KLPGA 시즌 첫 메이저 우승 후보는 파워랭킹 1위 방신실 2위 이예원·3위 박지영·4위 마다숨·5위 박현경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다. KLPGA는 30일 "공식 기록 파트너인 CNPGA가 스트로크게인드(이하 SG)와 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파워랭킹 TOP5를 공개했는데, 1위는 방신실"이라고 밝혔다. 방신실은 현재 위메이드 대산포인트와 상금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역대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전체 SG에서 2위(2.60)를 기록 중이며 '타석 to 그린' 부문 SG에서도 2위(2.31)에 올라 안정적인 장타와 아이언 정확도를 기반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예원은 파워랭킹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예원은 역대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SG 5위(2.25), 메이저 대회 전체 SG 4위(2.33)를 기록하며 코스 적응력과 큰 무대에서의 강점을 입증했다.

3위는 박지영이 차지했다. 박지영은 역대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SG 1위(3.04), 평균타수 3위(69.5100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코스에서 꾸준히 강한 경기력을 보여준 점이 높은 순위로 반영됐다. 4위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다숨이 선정됐다. 마다숨은 최근 3경기 SG 평균 3위(3.26)를 기록하며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어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워랭킹 5위는 박현경이 차지했다. 박현경은 본 대회에서 2회 우승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메이저 대회 평균타수 5위(71.9600타)의 꾸준함을 앞세워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이밖에 본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전예성은레이크우드 평균타수 부문 1위(69.2700)를 기록 중이며, 김수지는 메이저 대회 전체 SG 2.25로 해당 부문 1위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롯데 전민재, 망막·각막 이상 없이 찰과상 진단

아찔한 헤드샷으로 병원에 실려 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전민재가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 롯데는 30일 "전날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CT와 X-ray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민재가 골절 소견 없이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민재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도중 상대 투수 양지율에게 헤드샷을 맞고 쓰러지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당시 팀이 6-1로 앞서던 7회초 1사 1, 2루에 타석에 들어선 전민재는 양지율의 3구 투심 패스트볼에 헬멧과 눈 주위를 강타당했다. 총돌이 눈 부위에서 이뤄진 만큼 전민재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외상 전문의에게도 진료 및 검사를 받았다. 이에 롯데는 "전민재가 각막과 망막에는 이상이 없으며, 우측 안구 전방내출혈이 있어 약 7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은퇴'한 김연경, 세계여자올스타 친선전 뒤편

5월17~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KYK 인비테이셔널 개최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벤트 경기를 통해 다시 코트에 설까.

김연경의 소속사 ㈜라이언엡은 오는 5월 17~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김연경 초청 'KYK 인비테이셔널 2025'를 개최한다고 30

일 밝혔다. 이번 'KYK 인비테이셔널 2025'에선 김연경의 초청으로 여자배구 세계 올스타전이 개최된다. 첫날인 17일에는 김연경을 비롯한 세계 여자배구 올스타와 한국 여자국가대표팀이 맞대결하는 친선경기가 펼쳐진다. 김연경은 세계올스타팀 멤버로 후배들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있다.